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헌신

열왕기상 8:54-66

【인도자를 위한 예화】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와 행실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으며, 주일 전날에는 목욕함으로써 마음뿐 아니라 몸도 깨끗한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깨끗한 옷을 골라서 입고, 헌금으로 드릴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일찍 도착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날의 찬송가와 설교 본문을 미리 찾아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형식적 표현이 마음의 정성을 반영한다고 여겼기에 예배에 이렇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비기독교인의 시선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하며, 우리의 행실 또한 달라집니다. 집중할 만큼 성과가 있듯이,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의 주권적 섭리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반영하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에 진정한 예배자는 진실한 청지기로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로 인해 내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문 읽기】 열왕기상 8:54-6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예배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의 영향 아래에서 있으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도우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출 5:1),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출 5:3) 애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예배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 율법서(토라)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까닭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외적 활동의 근저에는 예배 중심의 내적 충만이 있었습니다(수 5:10~12; 22:9~34 등).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사 시대와 엘리 제사장 집안의 행태에서 나타난 예배 훼손 문제를 사무엘이 바로잡으면서 다윗 때 예배 회복이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대상 29:1~19).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출애굽 시대를 기록하는(6:1)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예배 회복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성전 건축'을 언급하며(대상 29:19) 예배를 강조했는데,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나요? 그가 백성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56, 61절)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신 분'이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시고 태평(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며 세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5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조상들과 언제나 함께하셨던 것처럼 백성을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니 너희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우회적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58~59, 61절). 말씀을 준수하려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 말씀의 길로 온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의미하기에, 이것들을 지키라는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해야 합니다. 유대교 전통 중 하나인 테펠린은 말씀을 머리와 팔에 붙이는 행위인데, 이는 말씀을 가시적인 곳에 가까이 두어 지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59~60절). 이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바쳐 완전해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적용과 나눔 I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그분을 향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54절에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손을 펴는 것은 소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 주시길 바라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탁하는 자세입니다. 이처럼 겸손과 소망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도우실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II

솔로몬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성전 봉헌식은 며칠 동안 이어졌으며, 누가 참여했나요?(63, 65절)

화목제에 사용된 제물은 소 2만 2,000마리, 양 12만 마리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14일 동안 진행되었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제물 수와 봉헌식 기간, 그리고 모여 온 사람들을 통해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화목제 제물로 드립니다(62~63절). 왕이 예배의 모범을 보이며 권면 하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사 기간에 다 드리기 어려울 만큼의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이 너무 많아 늦 제단에서 다 드릴 수 없어서, 성전 앞뜰까지 거룩하게 구별해 제사를 드립니다(64절).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쁨이 넘쳐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정성이 차고 넘쳐 났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7일(민 29:12~40)에 추가로 7일을 더해 하나님께 드립니다(65~66절).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14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7일에 7일을 합한 기간 동안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66절에 나오는 백성을 돌려보낸 여덟째 날은 두 번째 7일이 지난 뒤, 즉 14일 이후를 의미합니다. 셋째, 축제에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떠난 장소를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해당하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끝에 해당하는 애굽 강까지로 표현합니다(66절). 이처럼 정성을 다해 성전 봉헌식을 올리니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왕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십니다(9:1~9).

적용과 나눔 II

나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흔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의 정성’만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며,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보이는 형식적 측면도 갖춰야 합니다. 형식주의는 문제지만, 마음을 담은 형식은 필요합니다. 둘째, 내면의 준비를 위해 특히 죄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영성 생활의 기본은 ‘정결’입니다. 셋째,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며, 예배가 무너진 사람에게 다가가 영적인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형식과 내면의 일체적 표현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연합적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